

2010년 사업계획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0년 매출목표 2,010억원

## “화합의 장(場)”, 전사 체육대회 개최



지난 4월 24일 영도 어울림 한미당에서 2010년 전사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전사 체육대회는 다선 사우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영도공장 직원들의 주관으로 체육대회 개최 이래 목포공장의 직원들이 최초로 참석해 그 의미가 빛나는 행사였다.

위한 옷놀이와 여성을 위한 링 던지기 그리고, 참석 한 자녀들을 위한 그림 그리기로 진행됐다. 이 행사의 부상으로는 문화상품권과 크레파스와 스

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절대 체력이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행사였다. 평소에는 만날 수 없었던 많은 직원들이 참가한 행사가 정말 즐거웠고,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경식 다선 사우회 사무총장은 "사실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대회 전날 비를 동반한 우박 등 날씨가 좋지 않아 많은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경기 당일 오전에 운동장 사정이 좋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경기가 진행되기 전까지

의 상황을 전달했다.

이어 "이번 행사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음료와 주류 등은 협력업체의 후원이 있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회사 직원들은 행사가 끝난 후 운동장 주위의 쓰레기를 손수 치우는 등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금식 대표이사는 폐회사에서 "어려운 경기를 오늘과 같이 단합된 모습으로 헤쳐 나간다면 선보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강평했다.

체육대회는 상임고문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메인 경기인 족구, 피구 및 축구 경기와 단체 경기인 줄다리기, 단체 계주 등의 경기로 구성되었다. 부상으로는 단결상 30만 원을 비롯해 인기상 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각 종목 당 우승 상금은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지난 대회보다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외경기로는 어르신들을

케치북, 어린이 음료 등이 수여됐다.

올해 전사 체육대회에서는 약 75% 정도에 그친 타 공장들과 달리 구평 공장이 약 85%의 출석률로 가장 단결력이 좋은 팀으로 손꼽혔다. 또한 2조였던 설계부를 포함한 본사 관리직원들의 활약이 돋보인 한해로 족구우승, 피구우승 및 단체 계주 우승 등 3관왕을 이뤄 단체 1등상을 수상하였다. 2조의 구성원이었던 한 직원은 "사무실

## STERN TUBE UNIT 성공적 납품

우리 회사는 지난 4월 9일 삼성 1807호선용 'STERN TUBE UNIT'를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STERN TUBE UNIT'는 선박의 축을 지지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본사에서 UNIT화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납품한 'STERN TUBE UNIT'는 총 길이 14m로 국내 최장의 길이로, 본사 첫 납품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최장 길이의 첫 제품이다.

이를 위해 설계, 생산, 품질 부서에서 2008년 개발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시제품을 완성하고 발주하는 등 2년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관련 특허 4개 취

득과 함께 첫 납품을 하게 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스턴튜브는 향후 신규 후속 호선의 납품이 대기된 상태이며, 국내외 조선소 및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견적 요청 및 현장 방문 등이 이어지고 있다.



## 지식경제부 우리회사 방문

지난 29일 지식경제부 기업환경개선팀 오승철 과장 및 한용재 사무관이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현장방문'을 목적으로 우리회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 생산성본부 CEO 아카데미 추천으로 전국의 8개 방문 기업 중 한개로 선정되었으며, 지경부 일행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

이고 현재 준비중이거나 막 시작한 정부정책에 대해 자세 히 설명을 해주는 등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표이사는 환담을 통해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아끼지 않으며, 해양플랜트 사업 육성지원 정책 등 우리회사가 당면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였다.

Run SUNBO Run 회사 소식

# PMS 인증사업 업무협약



우리 회사는 지난 29일 본사 교육장에서 최금식 대표이사 및 한국생산성본부 이춘선 상무, 그리고 협력사 CEO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생산경영시스템(PMS) 인증사업 협약식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07년 PMS(생산성 경영 시스템)인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상생형 PMS

를 통하여 협력회사로 PMS를 전파하여 협력사가 PMS 심사기준에 의거 내부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역량 향상과 경영혁신을 활성화함으로써 모기업과 협력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회사도 급격한 성장 속에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조선 불황이라는 외부적 악재와 급격

한 성장과 비교시 경영시스템이 뒷받침 되지 못한 '성장통'을 극복하고자, 07년 PMS인증 심사를 통해 내부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경영혁신을 도입하여 매년 매출 30% 이상의 증가율을 달성하고 있다며 우리 협력사들도 이번 상생형 PMS 인증사업을 통해 끊임없는 생산성 혁신을 당부하였다.

행사 후 최상식 부사장은 협력사 CEO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상생형 PMS 인증사업을 실시하는 협력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Inside SUNBO 동호회 소식 선보 다이내믹스 (Sunbo Dynamics)

## 선보 다이내믹스(SUNBO DYNAMICS), 제2의 천하무적 야구단을 꿈꾸다



'부산야구, 롯데 자이언츠'라고 과연 아닐 정도로 이미, 부산은 야구의 도시로 정평 나있다. 최다 관중수를 포함해 주황비날봉지, 마', 이주라 등 사투리를 응용한 독특한 응원구호와 도구까지, 부산 시민들의 야구사랑은 남다르다. 야구가 개막되는 봄이 되면 이러한 열기들은 배가 되는데, 그에 일조하는 팀이 선보안에도 있다. 바로 야구 동호회 '선보 다이내믹스(Sunbo Dynamics)'다.

선보다이내믹스는 지난해 8월에 야구를 사랑하는 선보 직원들이 모여, 야구라는 운동을 통하여 상호 우대관계와 체력증진,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자는 취지 아래 창단되었다. 동호회 관계자는 "사실 야구가 장비도 갖춰야 하고, 장소도 섭외해야 하는 등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회사에서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그의 일환으로 창단을 하게 되었다. 회사로부터 장비 구입과 유니폼 구매 등의 목적으로 3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동호회를 적극 지원해 준 회사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선

보 다이내믹스는 한 달에 2차례의 정기훈련 및 경기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연습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한다.

WBC와 올림픽 우승의 여파로 야구의 열기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요즘, '천하무적 야구단'이라는 연예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야구단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장소와 장비의 제약으로 망설이고 있는 야구에 뜻을 품은 사람들이 그 열기를 표출해나가고 있다. 아직은 완전하지만은 않은 조건으로 시작했지만 무슨 상관이었는가, 업무에 지친 그들을 일으켜 세울 힘으로 이미 충분하다. 제2의 천하무적 야구단으로 거듭날, 아니 선보 다이내믹스 (Sunbo Dynamics)의 이름을 널리 알릴 그날을 기대해본다.

●가입문의: 1공장 권남현, 2공장 김문철



Life 최후의 상무의 이달의 책

## 소설 「무소유」

성철 조계종 종정의 삶을 다룬 소설 '산은 산 물은 물로 잘 알려진 작가 정찬주씨가 법정 스님의 생애를 소설로 엮었다.

작가는 스님으로부터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무염(無染)'이란 법명을 받을 만큼 개인적 인연이 깊었다. 스님의 만상좌인 덕조스님을 비롯해 법정 스님을 모셨던 상좌 스님들이 책의 내용을 감수하며 최대한 스님의 생애를 정확히 재현했다고 한다.

등대지기로 사는 것을 꿈꾸던 소년 시절, 미래를 위해 매진하던 대학 시절, 이후 출가와 반독재 운동, 길상사 창건 등으로 이어지는 삶이 펼쳐진다. 영화 서편제를 보며 여동생 생각에 울었던 사연 등 가슴 뭉클한 장면들도 담았다.

"스님은 속가의 여동생에게 살뜰한 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가 후에도 예닐곱 살 된 그 때래 아이만 보면 예뻐하셨지요."

'무소유'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의 속가 시절과 출가 뒤 선 수행 과정의 내밀한 얘기 등 인간적인 모습을 친근하게 형상화시켰다.

무엇보다 정을 주지 못했던 속가의 여동생에 대한 살가운 정이 추상같은 스님의 모습과 대비돼 눈길을 끈다. 고등학교 시절, 재가한 어머니가 여동생을 낳자 외면했던 동생이다.

스님은 강원도 오두막 방에 화가 박항률이 그린 단발머리 아이 '몽순이' 그림을 걸어놓고 그리울 때마다 바라

봤다.



보통학교 5학년 산수시간, 일본인 행세를 하는 담임선생님을 향해 투덜거려 걸려 슬리퍼로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한 일도 있다.

여덟 살 때 보통학교에 입학한 뒤 할머니를 따라 상회에 옷을 사러 갔다가 경품으로 원고지를 받은 일, 남부금 때문에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6.25전쟁 중에 행랑채에 숨어 지낸 일 그리고 그가 끌어내려 애쓴 할머니와 어머니 이야기 등이 한국 선불교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 법정 스님의 삶으로 이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통장의 잔액이 거의 없던 법정에게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자 고학생들에게 남몰래 장학금을 준 게 밝혀진 사연, 독립기념관 백련지 연꽃을 즐겼던 스님이 어느 날 연꽃이 사라지자 이를 지적해 시정을 받아낸 일, '굴신운동'이란 원고를 본 성철 스님의 제자들이 폭행으로 방구들을 파 버리자며 들이닥쳐 해인사를 떠난 사연도 들어 있다.

스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소설적 주인공으로 법정을 주변과 자연 속에서 묘사해나가는 소설적 공간이 아름답다. 특히 작가의 생생한 전라도 사투리 구사는 읽는 맛을 더해준다.

Inside SUNBO 기타 단신

# 신바람 나는 일터, 가족친화 경영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우수사례

신보공업 '중소기업도 가족친화경영 어렵지 않다'

신보공업은 부산 서해구에서 선의, 조산까지를 생산 직원이 정기 휴근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이다. 직원 중 희망자는 '주말농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김치가 같은 농장체험'을 운영할 수 있게 연2회 1인당 4회까지 영하리조트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의사결정, 이는 '신보이벤트' 프로그램 가족이벤트 대회의도

##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우수사례 소개

우리 회사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우수사례에 소개됐다.

이 소식지에서는 우리 회사를 "중소기업도 가족친화경영 어렵지 않다는 모범을 보여"라고 소개했으며, 정기 출퇴근, 가정의 날 시행, 주말농장(따기 체험 등), 영화/공연 티켓 제공, 회사견학, 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Life 여행을 떠나요

# 도심 속에 살아 숨쉬는 고품격 녹색공간 울산대공원

바야흐로 봄이 왔다. 울츠렸던 기지개를 활짝 펴고 봄맞이 여행은 어디가 좋을까 생각하는 우리 선보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주말은 '울산대공원'이 어떨까.



해운대에서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약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울산대공원은 푸르른 나무와 꽃이 거대한 풍차와 조화를 이루며 약 110만여 평의 부지에 펼쳐져 있다.

아외에는 테마파크가 있다. 4개의 크고 작은 연못, 산책로, 각종 놀이시설, 옥외공연장(2,500석 규모), 광장, 다목적 구장(球場), 소풍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나비관과 에너지관, 환경관, 그리고 동물원 등 아이들이 실제 자연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특히 수영장동(아쿠아시스)은 울산대공원에서도 유명한 시설.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은 실내와 옥외 수영장으로 나뉜다. 실내 수영장은 길이 20m짜리 4개 레인을 갖춘 램플과 파도풀·마사지풀·월풀·슬라이드풀·어린이용풀 등으로 세분된다. 옥외수영장은 2개가 있고, 헬스장·탈의실·수영용품점·휴게실 등 각종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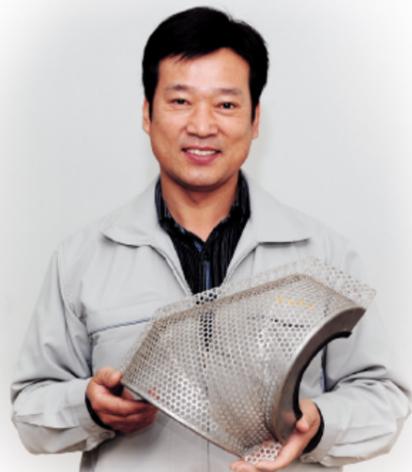
그밖에 편의점, 식당, 자전거·유모차 대여소, 85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 6개의 분수, 음급실, 피아보호소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다.



### 울산대공원 가는 길

- 대중교통  
공업탑 방향 시내버스를 타고 울주군청 앞 정류소에서 하차  
→ 울산대공원 정문
- 자가차량 이용시  
고속도로 경유  
울산IC → 신북로터리(고가도로 이용) → 옥현사거리(지하도로 이용) → 울산대공원 남문  
옥현사거리(좌회전) → 울주군청前 사거리(우회전) → 울산대공원 정문
- 해운대(기장)방면  
덕하사거리(좌회전)  
부산방면  
문수구장 → 옥현사거리(우회전) → 울산대공원 남문  
옥현사거리(직진) → 울주군청前 사거리(우회전) → 울산대공원 정문

Inside SUNBO 최동배 부장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탐방



## 한도판칭 일정한 간격으로 판칭하듯, 현재진행형 '한도 판칭'을 만나다

공장 내에 들어서자마자 일정한 간격과 시간차로 무언가를 툭툭 두드리는 소리. 1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게으름 부리지 않고 꾸준히 때로는 무엇보다도 다부지게 성장해 온 한도판칭을 만나기 위해 김해시 주촌면을 찾았다.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준 선보**

한도판칭의 김정수 대표이사를 만나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선보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는 "올해로 선보와 인연을 맺은지 꼭 10년째다. 한도 판칭이 걸음마를 떤 지 11년이 되었으니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다. 기술 등의 경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때 선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는 수줍은 미소를 보인다.

이어 "선보를 떠올리면 본사의 그 계단이 함께 생각난다. 10년 동안 오르내리다 보니 현황은 물론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느끼게 된다. 일에서

쳐 해답을 알지만 그 해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선보를 들릴 때면 항상 그 마음을 한 번 더 다지게 된다"고 강조한다.

**'해야겠다'가 아닌 '하고 싶다'로 변하기까지**

한도판칭은 말 그대로 우리회사의 사이렌서, 스트레이너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부품을 판칭하는 회사다. 비록 회사 전 직원이 10여 명도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녹록치 않다. 우리가 가는 판칭이지만 다양한 규격과 규모로 판칭 업계에서는 장비를 많이 갖추고, 생산성이 빠르기로 유명하다고. "일반 수주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서 어려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섬세하고, 정확하게 작업한다. 기술력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그에 안주하지 않고 누락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설계하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다. 그 길만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이유다"라고 말했다.

사실 처음에 사업에 뛰어든 때는 기업을 멋지게 일구어 내겠다는 포부보다는 IMF 막바지였던 시대 상황과 어울려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는 김정수 대표이사.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한다. "처음의 시작이야 어찌됐건, 지금은 선보를 포함한 여러 큰 회사들을 보며, 내 회사를 뜻 있는 방식으로 키워나가고 싶고 그러다보니 이 회사가 이제는 내 꿈이 되었다"라며 환한 웃음 내비쳤다.

**'국내 자체 생산'하겠다는 그 자부심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타 회사와는 달리 지금 사업의 연장선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김정수 대표이사. 그는 "요즘 자재 문제 등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대소사에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대비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을 국내에서 만들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완성하기 까지

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품목들을 국내 자체 생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품질의 훌륭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재질개발과 다양한 실험정신, 높은 기술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터뷰 말미에 "앞서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라고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긴 한도판칭 김정수 대표이사는 "뒤보다는 앞만 보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매진하고 싶다. 그렇다면 언젠가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과거가 없다면 현재를 이겨내기에 많은 힘이 든다. 그것을 토대로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되,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왠지 모를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왜일까.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품질보증부 김현우

## 선보 표 스티튜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작하는 도급품의 품질향상과 유지를 위한 도급 업체 관리와 사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상태를 점검/확인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모범상을 받으셨는데, 받게 된 소감과 더불어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가 특별히 모범적인 행동을 해서 상을 받게 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제품의 품질검사에서 합격을 받는다는 것은 선행공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얻게 된 결과물입니다. 그 성과가 결코 저 자신의 성과가 아니듯이 모범상 또한 저 자신만의 상이 아닌 구평 공장 가족들 모두의 모범상이라 생각합니다.

**Q 평소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구평공장 품질보증부에서 주로 삼성으로 납품되는 TANK TOP BLK. UNIT의 품질

**Q 업무를 진행할 때, 자신만의 신념이나 모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객과 항상 부딪혀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정직함'과 '객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는 자신'과 주위 상황에 대한 구차한 변명으로는 고객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한 문제를 정직하게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또 더 나은 해결방안을 고객이 제시 할 수도 있는 상호간의 신뢰감을 형성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기준으로 O/X를 판단하고 'X'일 경우 'O'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하고자 기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Q 선보에 몸 담으면서 혹은 지금 업무 중 특히 힘들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고객과의 피할 수 없는 마찰이 가장 힘들습니다. 고객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안으로 곱어지는 팔을 밖으로 쳐내려니 내부의 불만 역시 감수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Q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보람찼던 경험이 있다면요?**

검사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설득과 협박으로 밤새도록 작업을 지켜본 후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합격이라는 단순 결과 보다 저뿐만 아니라 작업자 스스로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느끼는 눈빛을 보는 순간이 가장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한마디나 선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올해는 10년 연애 끝에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오는 11월부터는 선보에 입사한지 만 5년이 되는 해인 만큼 가정에서는 자랑스러운 남편, 회사에서는 신뢰받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자세에서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탈피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46호



품질보증팀 강현욱

## '히로애락'을 통해 '설득의 달인'이 되다

거래업체 일을 하느라 회사에 머무를 시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 적다보니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칭찬을 받게 돼서 기분은 좋네요. 칭찬은 늘 기분 좋은 일이지요.

**Q 지금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있으며, 평소 일하면서 자신만의 신념이 있다면?**

저는 지금 자재와 파이프 쪽 피스 담당을 맡고 있어요. 거래 업체들의 긴급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외근이 많아요. 바쁘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날카로워 지고, 화를 내는 일도 잦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대할 때 항상 웃으면서 일하려고 해요.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상대방이 웃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에게 끈질기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사람보다는 난 꼭 하고 싶더라든지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더 분명해보이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구요. 매사에 침착하고, 느긋하게 일하려고 노력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신중을, 신중을 거듭하는 거죠.

**Q 다음 칭찬릴레이 주자를 추천한다면?**

저는 전장반 전기 담당을 하시는 신승훈 주임을 다음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이 분은 혼자 하는 일이 많아요. 다른 분들도 물론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특히나 꾸준하고 묵묵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일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일도 업무만큼이나 중요할 때도 많은데,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약속들을 다 미뤄두고서라도 끝까지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다른 분들께도 귀감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절대 인간관계에 소홀하지 않아요. 주변분들을 많이 챙기시고, 배려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서도 또 가정에도 충실하시구요. 참배울게 많은 본인 것 같아요.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b>본사 생일</b>	
경영지원	임기봉(5/19)
생산관리	조재현(5/29)
설계	송현범(5/9), 최홍렬(5/30), 김동길(5/17), 최재호(5/7), 김구영(5/4)
1공장	차상오(5/13), 최우태(5/29), 신용기(5/29), 김중성(5/16)
2공장	장상권(5/29), 박상주(5/21), 정현철(5/29), 문평옥(5/27), 김상덕(5/27)
3공장	장창욱(5/25)
출하준비	최봉순(5/8)
<b>본사 입사기념일</b>	
경영지원	임기봉(5/18)
경영기획	이재민(5/1)
설계부	신인호(5/1), 박문영(5/16), 최재호(5/2)
생산부	이영근(5/1), 신동호(5/1), 김명운(5/2), 서정현(5/1), 황기태(5/1), 윤윤중(5/1), 문홍호(5/1), 송유신(5/1)
<b>구평공장 생일</b>	
설계5팀	김정식(5/20)
설계6팀	임우택(5/5)
생산부	최임철(5/19), 조기래(5/16), 성민기(5/27), 박형민(5/1), 김주환(5/22), 공금성(5/10), 조영진(5/5)
<b>구평공장 입사기념일</b>	
생산관리	황지환(5/2)
품질보증	김건우(5/1)
설계6팀	민병철(5/19)
<b>영암공장 생일</b>	
생산부	김효호(5/17), 천타내(5/28), 김명진(5/9), 박용석(5/22), 김진태(5/11)
설계부	오충석(5/27)
<b>영도공장 입사기념일</b>	
품질보증	박상계(5/2)

Run SUNBO Run 안정빈 과장의 "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